

스포츠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되었다. 예전의 나는 스포츠가 체육과 같은 의미로 뛰어 다니고 몸을 사용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와서 스포츠를 단지 체육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전세계 어디에도 문화와 예술, 그리고 스포츠를 빼놓은 나라를 찾기란 쉽지가 않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많은 선진 대학, 선진 도시에 가보면 스포츠 활동을 게을리 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이다. 스포츠에서도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융합 적인 구조를 가지고 가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스포츠 산업에서 이제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스포츠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와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많은 회사들과 기업체들이 스포츠 분야에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한다.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회사들이 투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스포츠 산업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포츠 산업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 더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 개발, 혹은 연구를 진행할 때 사람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스포츠 경기에서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발견해낸다. 특히 스포츠를 지켜보는 스포츠 팬들의 관여도, 선수들의 경기력과 만족도 증가, 선수들이 활동하는 경기장의 시스템, 그리고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간접 경험할 수 있는 미디어의 발전은 스포츠 산업에서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다. 큰 기술이 아니더라도 작은 기술만으로도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만족도를 선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스포츠 팬들을 주 고객으로 하여 세일즈를 진행하는 회사들은 어느 시점에 어느 연령층의 사람들이 빈도가 높은지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분석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더 나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스포츠가 빅데이터와 만나게 되고 스포츠라는 산업에 데이터가 접근하면서 구단, 감독, 코치, 선수 그리고 그 경기를 관람하는 팬들까지 모두 함께 발전하게 된 것이다. 초기 데이터 수집 단계인 카메라, 센서 등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발전하는 동시에 이러한 기술들은 더 나아가 기술 자체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인권과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까지 이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어 버렸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스포츠 산업으로 발전이 되고 현대 사회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문화로 정착되었다.

이제는 전세계 사람들이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더불어 시청자 입장에서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선수들의 데이터가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인데, 요즘은 선수들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기술들의 발전이 없었다면 스포츠라는 분야도 직접 경기를 하는 사람들의 체육 활동으로 남았을 것이다. 선수들의 경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응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관람객 혹은 시청자들이 함께 존재하기에 스포츠 산업이 이토록 발전해 온 것 같다.